

# 캐나다리안 록키 여행

(2014,9,11~9,25)

2014,9

김 선 지

## □ 들어가면서

여행은 그리움이고 바램이라고 했던가?

그리고 보니 2006년 현직에 있을 때 직장동료였던 이의준 군이 미국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는 자동차로 가족과 함께 캐나다 록키를 여행했던 일이었다며 기회가 닿으면 자동차로 여행하기를 권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어디 3000여 킬로를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어서 늘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다.

마침 아들 내외가 캐나다에서 그리 멀지않은 시애틀에서 2013년부터 학위를 하게 되어 이참에 시애틀을 전진기지로 삼아 여행을하기로 작정하고 가을부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 □ 여행준비

다른 여행도 마찬가지로 막상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럴 때는 제일 접근하기 쉬운 자료부터 구해 개략 윤곽을 그린 다음 어느 코스로 가야할지, 여행기간, 여행시기, 운행거리, 무엇을 보아야 할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외곽에서부터 차츰 조여가는 방안이 최고다. 일단 서점에가서 가이드북인 "세계를 간다, 서부 캐나다"를 구입하고 여행사에서는 패키지 코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위해서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하나투어에서 캐나다 상품 일정표를 받아왔다.

개략의 얼개를 짜고 세밀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반년 이상을 정보의 바다를 헤매면서 여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별첨 여행계획서)

그리고 여행은 당초 우리 둘만 가려고 생각했으나 장거리 운전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과 언어문제 등을 감안하여 젊은 아들 내외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회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함께하기로 하고 시기는 2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9월 11일부터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찌감치 5월에 직항노선중 제일 값싼 항공권을 와이페이모어에서 구입하고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갱신한 다음 ESTA신청과 경찰서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고 필요한 외화는 미리 환전을 하였다.

숙소는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롯지타입으로 하여 경비를 절약토록 하고 미리 전기밥솥과 밀반찬을 준비하였다.

차량렌트와 숙소예약은 아들내외가 시애틀에서하기로 하였다.

6월초인데도 제스퍼나 밴프는 우리가 원했던 숙소는 예약이 이미 끝난 곳도

있어 조금 떨어진 힌톤과 캔모어, 골든으로 계획을 약간 수정하였다.

### 여행 총괄 일정

*2013,9,11~9,13	시애틀 구경 및 시차적응
9,14~9,21	케나디안 록키 여행
9,22~9,25	시애틀 구경 및 휴식

### □ 입국 및 세관심사

우리가 타고온 아시아나 OZ272편은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13시 10분에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도착하였다

2000년 아내와 하와이 여행을 하면서 입국 심사 때 랜덤 체킹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어 왠지 모를 두려움으로 긴장을 잔뜩하고 앞사람 뒤를 졸졸 따라 사람좋아 보이는 심사관 앞에 섰다.

양손지문과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행복하듯이 얼굴사진을 찍은 다음 심사관이 방문 목적을 묻기에 관광과 시애틀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왔단니까 좋겠다고 하면서 넉살 좋게 대해주어 긴장이 싹 풀렸다.

시애틀 공항은 구조가 약간 복잡하여 인터넷에서 공항 구조를 출력하여 나름대로 도상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저 사람많은 곳으로 따라가면 된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사람들을 따라 아래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짐을 찾고 다시 세관심사를 받으면 된다.

실은 출발 전부터 고민하고 긴장했던 것은 애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된장, 고추장과 고추가루와 우리가 여행 중에 롯지 위주로 숙소를 예약했기 때문에 준비한 각종 짬짜와 씻은 묵은 김치를 세관신고서에 농축산물은 있습니까? 항목에 Yes로 기입할 지 No로 할 지였다.

미국이 농축산물 반입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비하여 신고서에는 일단 Yes로 표기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굿바이로 통과하였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S Gate(아시아나,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이짐을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놓으면 Main Gate로 보내고 지하철을 타고 메인게이트에서 내려 짐을 찾아 나오니 아들내외가 마중나와 있었다.

### □ 시애틀에서

시차 적응차 집에서 쉬면서 여행에 사용할 물품도 구입하고 지루하고 답답하

면 호숫가나 공원을 산책하였다.

집 바로 근처에 있는 라벤나 공원은 대낮에도 어둠침침할 정도로 우거진 원시림으로 인공을 가미하지 않아 힐링에는 최적이었다.

시애틀에서 고속도로로 한 40킬로 떨어진 명품 아울렛도 구경하였는데 여주나 고양에 있는 아울렛과 거의 닮은꼴이었다.

시애틀에 오면 모든 사람이 성지순례하듯 들리는 스타벅스 1호점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로만을 우회하여 수상페리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들어갔다.

스타벅스 1호점 앞은 한참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안은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조그마한 가게에 완전 테이크아웃 시스템이라 수익이 엄청 날것 같았다. 커피맛은 글썄?

저녁에 딸의 카톡을 보고서 1호점만 로고가 다른 것을 알았다.

## □ 캐나다안 록키

시애틀 → 애보츠포드 국경심사대 → 캬루프스 → 클리어워터 → 웰스그레이 주립공원(1박) → 벨몬트 → 롱슨주립공원 → 제스퍼(2박) → 미에뜨 핫스프링스 → 힌톤(3박) → 제스퍼 → 레이크 루이스(4박) → 밴프 → 캔모어(5박, 6박) → 필드 → 레블스톡 → 켈로나 → 팬틱턴(7박) → 오소유스 → 오르빌국 경심사대 → 쉐런 → 시애틀

\*7박8일/3124km

### 첫날:9/14 /맑음

오늘 일정은 시애틀을 출발하여 에브렛, 벨링함을 거쳐 Abbotsford 국경심사대를 통과한 다음 Hope, Kamloops, Clearwater를 거쳐 Wells Gray 주립공원 내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코스다.

평소 성격이 별로 급하지 않은 아내가 첫날은 장거리 코스니만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면서 서둘러서 예정보다 2시간 빠른 6시에 출발하였다.

집에서 고속도로까지는 2.5Km에 불과하여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캐나다 쪽으로 북상하였다.

차선은 겨울에 비는 많이 와도 눈은 별로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 캣츠아이를 설치하였고 노면 평탄성 등 관리 상태는 그리 양호하지 않았다.

벨링함에서 지방도로를 타고 2시간 반만에 Sumas 국경검문소에 도착하였다.

별판에 있는 농촌마을로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곳인지 심사 대기 중에도 온통 소똥냄새가 진동하였다.

심사는 그리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았다. Sumas way를 따라 2km 정도를 더가 애보츠포드 비지터센터를 들렀으나 아직 문을 열지 않아 바로 Trans-Canada Highway를 타고 가다 Hope를 지나니 고속도로 명이 Coquihalla Hwy(#5) 로 바뀌었다. Merrit에 들러 주유를 하고 다시 캠루푸스를 향하여 북동진하였다.

캠루푸스는 철도와 고속도로 3개 노선이 분기하는 교통의 요지로 인디언 말로는 두 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라는 뜻이며 록키 여행자들이 밴쿠버에서 제스퍼 국립공원이나 벤프 국립공원으로 가는 중간 기점이다..

깜박 실수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97으로 직진하는 바람에 한참만에 중앙 분리대 개구부에서 유턴하는 용맹(?)을 발휘하여 정선에서 다시이름이 바뀌는 Southern Yellowhead Hwy (#5)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부터는 지형이 점점 산악 지형으로 바뀌고 우리는 철도와 함께 계곡과 강을 따라 120Km 를 더가 Clear Water에 오후2시에 도착하여 비지터 센터에 들러 자료를 구하고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클리어 워터는 워낙 작은 마을이고 거기다 패키지 관광객이 웰스 그레이 공원은 들리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지 블러그나 카페에서도 자료를 거의 구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래서 숙소도 클리어워터에서 40Km 들어가 웰스 그레이주립공원 내에 딱 한 곳 밖에 없는 Helmcken Falls Lodge를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값에 예약하였다.

헬름켄 폭포 근처에 있는 숙소까지는 외길로 주변능선은 초가을 날씨로 접어들어서인지 침엽수림 하단에 있는 자작나무 잎도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대관령에서 선자령으로 넘어가는 백두대간 길과 흡사하였다.

먼저 공원 입구에 있는 도슨폭포(높이91m)를 구경하고 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하얀 물보라가 나무 위의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높이 145m의 웅장한 헬름켄 폭포와 스팟햇 폭포를 구경하였다.

롯지에 들어가 저녁을 먹은 후에 주변 캠프장과 골프장 주변을 산책하고 여행 첫 밤을 맞이하였다.

## **둘째날:9/15/괘청**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지의 첫 날 기착지로 알려진 Valemont 가는 길은 이제까지의 완만한 구릉지대와는 달리 산과 계곡과 호수를 끼고 달리는 길로 변했다.

중간 중간에는 커다란 곰이 그려진 River Safari 간판이 서있는 것을 보니 어디선가 곰이 강가 침엽수림 사이에서 어슬렁거리며 나타날 것 같다.

출발한지 2시간 반에 10시30분에 벨마운트에 도착하여 주유와 식료품등을 구입하고 비지터 센터를 둘러본 다음 록슨산 카페에서 햄버거로 점심을 먹으니 다소 이르지만 한국식당 "뚝배기"에서 제육볶음과 한정식으로 배불리 먹었다.

벨몬트에서 얼마가지 않아 3지 정션(Junction)에서 동쪽으로 Yellowhead Hwy(#5) 로 접어들면 공원 안내소 앞에 피라미드 형태의 독립봉 로키 최고봉인 Mount Robson(3,954m)이 나온다.

마운트 록슨은 날씨의 변화로 전경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운이 좋았나 보다.

구름 한점 없는 잉크색 하늘에 겹겹이 쌓인 하얀 바위산에 만년설이 쌓인 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준다.

안내소 뒤쪽 길로 록슨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Kinny Lake까지 왕복 9Km 의 트레일(3시간 코스)은 록슨산을 바라보면서 원시림과 계곡을 끼고 가는 완만한 코스로 힐링이 다된 가쁜한 기분을 만끽하였다

제스퍼 국립공원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여 차 유리창에 붙이고 밴쿠버 쪽에서 캐나다 로키산맥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첫 번째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마을인 Jasper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30분이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앨버타주로 넘어왔기 때문에 1시간 시차조정을 하니 17시30분이되어 비지터센터는 이미 클로즈된 상태였다.

제스퍼는 인구 5,000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지만 하이킹, 승마, 래프팅 낚시 등 모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밴프와 함께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밴프에 비해서도 작은 곳으로 숙소를 얻기 힘들어 예약은 필수다.

우리도 피라미드호 가는길에 위치한 맘씨 좋다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민박집 The Bears Den(\$80 CDN) 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어 시내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패트리셔 호숫가에 있는Patricas Bunglow를 예약하였다.

방갈로도 2일 이상 숙박이 원칙이나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 구할 수 있었다.

캐나다는 활엽수가 훨씬 귀하고 대접받는데 통나무집마다 주변에 자작나무를 한두 그루씩 심어 놓았고 노랗게 물들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투숙객 대부분이 70이 넘는 은퇴자들로 캐나다 내국인 장기 투숙자들이라고 한다.

키니호 트레일에 모두 약간 지친것 같아 내일 일정 중 피라미드호 주변 승마

트레일을 취소하고 늦게까지 폭 쉬고 여유있게 말린호 투어를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 **세팻날:9/16/ 맑음**

주요 일정은 Maligne Lake 크루즈와 말린 계곡을 트레일하고 제스퍼에서 Yellowhead Hwy(#16) 를 따라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Miette 에서 온천후 Hinton 숙박이다.

아침 일찍 호수가로 산책을 나가니 데크 위에서 조사 한 분이 열심히 릴을 던지고 있었으나 한참을 있어도 고기가 낚이지는 않는 것 같다.

물빛은 푸른 옥빛으로 신비하고 아름답지만 석회암이 녹은 물이라 고기는 잘 살지 못할 것 같다.

호수 저 건너편에서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느즈막하게 롯지를 출발하여 맛집으로 이름난 Bears Paw Bakery에서 빵과 간식을 구입한후 10시 10분에 말린호로 향하였다.

말린호 가는길 중간에 있는 신비의 호수라는 Medicine Lake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 거의 기다리지 않고 캐나다안 로키에서 제일 큰 빙하호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풍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Sprit Island 라는 작은 섬까지 왕복 하는 90분 간의 크루즈선에 탑승하였다.

주변 풍광은 호수물빛과 어울려 인상적이었으나 스프릿 아일랜드는 수위가 낮아져 약간 실망스러웠다.

준비해온 간식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아들 부부와 따로 호수주변 트레일을 하고(트레일이나 산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따로함) 돌아가는 길에 있는 말린 계곡 입구에 주차하였다.

갑자기 송여사가(우리 집사람) 이번 여행 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편광안경이 없어졌다고 해서 가방과 차 안을 뒤지고 한바탕 법석을 떨었는데 결국은 머리 위에서 찾았다.

계곡은 1번 교량에서 4번 교량까지 폭 5~20m 깊이는 20~50m로 폭포와 중간 중간에 물의 힘으로 바위가 바위를 깎아낸 둥그런 소등이 연속되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중국무협 소설에 나오는 비급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신비감이 들었다.

시간이 남아 일정에 없던 휘슬러 산에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니 멀리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롱슨산도 보이고 우리가 묵었던 패트리셔 호수와 피라미드 호수는

물론 수많은 호수가 눈에 들어왔다.

그 때 멀리 주황색,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등 가지각색의 컨테이너를 실은 기차가 제스퍼역으로 들어 오는 것이 보이는데 끝이 없는것 같다.

시베리아 바이칼 근처에서 보았던 횡단열차와 흡사 하였고 열차는 길이가 마일 단위라고 한다.

미에뜨 온천에서는 식사가 애매 할 것 같아 시내 맛집에서 호사를 하고 온천욕 후 출출 할 것 같아 곰발 빵집 맛이 괜찮아 사러 갔더니 18시가 지나 문을 닫아 그냥 출발하였다.

제스퍼에서 Hinton 까지는 80km 로 다소 먼 거리지만 미에뜨 온천 들어가는 입구 힌톤까지는 그리 멀지 않고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숙소로 정했었다.

제스퍼 시내를 벗어난지 얼마 안되어 덧씌우기 포장 공사 중이라 30여 분을 지체하였다.

아마 성수기가 끝나고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겨울이 오기전에 일제히 추계정비를 하면서 덧씌우거나 재포장을 하는 것 같았다

불과 3일밖에 보지 않았지만 캐나다 도로관리나 시스템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았다.

캠루푸스 까지는 4차로로 달려오다가 분기하면서 2차로로 바뀌었지만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소도읍 통과부는 반드시 4차로로 처리하였다 .

오르막 차로와 양보차로를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차량군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90km/h를 유지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

물론 도로 평탄성이나 부속시설물 관리도 흠이 눈에 띄지 않았다.

통제가 해제되고 한참가다 미에뜨 들어가는 입구를 아차! 하는 사이에 지나쳐 다시 유턴하여 돌아와 꼭 곰이 튀어 나올 것같은 험한 산길을 17km나 달려 미에뜨 온천에 도착하여 준비해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야외 풀장에서 몸을 풀었다.

여기도 도로가 다른 곳과 연결되지 않는 외길로 한참 외진 곳이라 캐나다 내 국민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 그런지 동양인은 딱 우리식구 4명 뿐이었다.

힌톤 못 미쳐 제스퍼 국립공원 출입증을 조사하는 게이트가 있었다.

드디어 오늘의 보금자리 Eeno Suites Hinton에 도착

**네뻗 날:9/17. 맑음**

어제까지는 구름한 점 없이 화창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출발 전에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드라이빙하고 콜롬비아 대빙원에서 설상차 투어를 하기 때문에 방한복을 별도로 챙겨 넣고 그곳 서비스에어리어에 있는 음식은 맛도 좋지 않고 가격도 절대 착하지 않다는 여행자 팁을 참고해서 제스퍼 그 곰발빵집에서 간식과 과일을 챙겼다.

어제처럼 공사현장에서 대기하지 않기 위하여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바로 우리 앞차부터 컷되어 30분정도를 지체하였다.

제스퍼에서 남쪽으로 접어들면 캐나다로키의 양대 거점인 제스퍼 국립공원과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1960년에 개통된 Icefield Park way(#93)로 양쪽에 우람한 절경을 옆자리에 태우고 달리는 기분이 드는 록키의 매력이 집중된 도로로 곳곳에 폭포와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다.

제스퍼에서 에서베스카 강을 끼고 30km를 내려가다 #93A로 막 들어서면 바로 나오는 에스베스카 폭포에서 한참 쉬고 이어서 쉰웍터 폭포를 구경하였다.

이곳도 말린 협곡과 에서베스카 폭포와 마찬가지로 물이 석회암을 녹이고 물이 돌을 돌려 만든 둥근 홀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간 중간 뷰포인트에서 쉬면서 Columbia Icefield Discovery Centre 거의 다왔을 때 또 도로를 차단하고 이번에는 비탈면 상단부에 자일을 걸어놓고 낙석에 대비하여 암털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차분하게 차안에서 준비해온 샌드위치와 바나나로 과일을 먹고 밖에 나가 건너편 빙하도 구경하였다.

이 친구들은 자연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인식해서 그런지 방호시설인 가드레일도 레일만 강재를 쓰고 포스트(20×15)는 나무 말목을 쓴 것은 대단하다 못해 부러웠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는 콜롬비아 빙하관광의 거점인 센터에 도착하자 바람이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 준비해온 옷을 꺼내 포개 입었다.

티케팅을 하려다 설상차 투어(\$49.95/인) 이외에 우리가 잠시 전에 공사로 대기했던 곳 근처에 금년 5월에 처음 시작한 두협곡 사이 Skywalk에서 어떻게 빙하가 형성되고 또 폭포가 되어 강이 되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 전 과정을 볼 수 있고 설명 해주는 투어 프로그램을 밴프 설퍼산 곤도라탑승과(\$27/인) 미네완카호 크루즈(\$28/인) 4개 상품을 묶어\$109.95/인에 판매한다기에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였다.

콜롬비아빙원 근처 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바퀴가 어른 키만한 설상차를 타고 올라갔다.

솔직히 작년에 눈덮인 알프스 아이거 북벽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벵앤 알프로

트래킹 하가면서 빙하를 실컷 보고 와서 그런지 빙하 색상도 푸른 빛이 도는 청빙이 아니고 거무튀튀하여 조금, 아니 많이 실망 하였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이젠을 장착하고 거기서 1km 정도 올라가는 빙하트래킹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다시 센터로 내려와 Glacier Skywalk 코스로 이동하는 과정에 mountain goat가 암벽 비탈면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스카이 워크는 절벽에 앵커를 박고 캔티레바 공법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걸어가면서 빙하를 이고있는 산과 협곡의 빙하와 폭포 등 그 형성 과정을 헤드폰을 끼고 설명해주는 에코 시스템이다.

스카이워크 끝부분은 스카이라운지는 유리바닥을 깔아회전하면서 280m 높이에서 계곡 바닥을 조망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압권이었다.

이 역시 설치 중에 거기 살고 있는 동물 친구들이 놀라지 않도록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립공법을 적용하고 강재도 무도장 강재를 사용 하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The Glacier Skywalk Tour:\$24.95/1인

투어를 모두 마치고 우리의 목적지인 루이스호를 향하였다. 크로싱을 지나 Mistaya Canyon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입구안내 표지도 다른 곳에 비하여 빈약하고 가이드북에도 꼭 보아야 할 명소 랭킹도 별 하나로 비중이 낮게 소개되어 큰 기대를 하지않고 생리도 해결할 겸 쉬기로 했다.

막상 내려가 보니 폭포 등 협곡도 말린이나 에서베스카와 또다른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고 멀리 보이는 머치슨산과 어울려 멋드러진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나는 최소한 별 2개로 격상하고 싶다.

\* 가이드 북 관광명소 랭킹

☆☆☆ 꼭 가봐야 할 명소

☆☆ 가보면 좋은 명소

☆ 시간 있으면 들러볼 것

새벽의 호수의 물색으로 유명한 페이토호를 지나치고 보우호로 들어섰다.

일단 앞에 가는 관광차를 따라 호숫가로 들어갔는데 관광객들은 우리와 빙하와 스카이워크관광을 같이한 일본인 관광객들이었다.

이곳은 롯지 투숙객 위주의 주차장인데 호수주변 뷰도 좋고 주변은 피크닉하기에도 딱이다.

원래 전망대 주차장보다 이곳으로 안내한 일본 가이드가 역시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이스에 도착하여 저녁 먹을 식당을 찾을 겸해서 이곳 저곳 다니다가 루이스 호까지 갔다.

빅토리아 여왕의 딸인 루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호수는 다른 호수와 달리 주변 산에 둘러싸여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일단 내일 차분히 보기로 하고 숙소로 돌아와 체크인(Mountaineer Lodge)후 인근 루이스 레스토랑에서 식사 했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식사를 또 하게될 까 봐 걱정일 정도로 최악이었다

### **다섯째 날:9/18** 가랑비/흐림/갸

기상하니 하늘은 잔뜩 흐려있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져서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첫날 구름 한점 없이 쾌청한 날씨에 하얀 눈을 이고 있던 록슨산이 눈에 아른거렸다.

루이스호 가는 길에 약 10km 떨어진 Moraine Lake를 먼저 들르기로 하였다.

모레인은 빙하가 운반한 퇴적물이라는 의미로 햇빛의 영향으로 오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캐나다 옛 20\$ 화폐도안에 사용 되었을 정도로 푸른 호수와 새하얀 눈의 대조로 빼어나 오히려 루이스호보다 풍광이 좋다는 평으로 우리도 여기에서 카누를 타고 오래 머무르려 했던 곳이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 카누를 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호수주변을 산책하고 어제 오후에 잠깐 들렀던 루이스호로 향했다.

루이스호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10대 절경의 하나로 다양하게 변하는 호수 빛깔과 뒤에 우람하게 보이는 빅토리아산이 호수를 감싸고 있는 아늑한 분위기에 공주라는 스토리가 입혀져 여름에는 발도 디딜 틈이 없도록 관광객이 붐비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도 사전 계획시에도 방값이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루이스에서 숙박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주변을 산책하다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져 로키를 대표하는 명문 리조트호텔 중의 하나인 The Fairmont Chateau Lake Louise에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날씨가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커피숍이 11시에 연다고 해서 벤프로 가기로 했다.

벤프에 도착하여 약 10분 거리에 있는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 한다는 미네완카 호수와 투잭, 존슨호를 둘러보기로 했다. 미네완카 호수를 둘러보고 바로 옆에

있는 Two Jack호에 왔을 때는 날이 활짝 개어 윈도우 자켓을 벗을 정도로 더워졌다

앞에 가는 차가 멈추 길래 또 공사 때문인줄 알았는데 사슴무리가 인근 숲에서 내려와 사슴이 관광객을 구경하는 바람에 사슴이 지나갈 때까지 모든 차량이 제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는걸 보고 로키의 야생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말린호의 스프릿 아일랜드와 유사한 침엽수가 우거진 작은 섬하며 역광에 반짝이는 주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나만의 인상적인 록키 호수를 선정 하려면 말린호와 루이스호 요호의 에드머럴호 거기에 투잭호를 하나 더 끼워 넣고 싶다 .

다운타운으로 내려와 서울옥에서 입맛을 돋우고 다운타운 구경을 한다음 마라린 몬로가 주연한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촬영지로 유명한 보우폭포까지 산책하였다.

바로 뒷 쪽에 보우강과 스프레이강이 합쳐지는 곳에 웅장한 록키를 배경으로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호화로운 The Fairmount Banff Springs Hotel이 있다.

미로 같은 호텔 내부를 샅샅이 구경하고 터널산을 조망하는 전망좋은 라운지에서 난생 처음으로 시중을 들어가며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호사를(\$200 CAD: 팁포함4인)한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의 하나가 되리라.

밴프 국립공원에서 약 22KM 떨어진 Canmore 가는 길은 4차로 고속도로로 잘 닦여있어 시내까지는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고 주변의 웅장한 산세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것 같았다.

역시 여행지는 어떻게 스토리를 입혔는가에 따라 그 가치와 유명세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캔모어는 밴프보다 유명세는 못타고 있으나 거리상으로나 호텔비 등 여러 면을 감안 할 때 로키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삼기에 적격인 것 같다. (호텔비는 밴프나 루이스의 절반수준임)

우리가 이런 점을 알았더라면 굳이 전날도 루이스에서 잘게 아니고 캔모어를 택했을 것이다.

내일 숙박지도 요호국립공원 조금 지나 있는 골든에서 이곳 Canmore에 있는 Banff Boundary Lodge로 바꾸기로 했다.

## **여섯째 날 9/19** 갠/가끔 빗방울

오늘 날씨도 아침은 어제처럼 맑았다 흐렸다 하다가 우산쓸 정도는 아니게 빗

방울도 간혹 뿌렸다.

산맥 한쪽은 가을하늘처럼 청명하고 반대쪽 산은 여름 날처럼 뭉게구름이 피어났다 하면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설퍼산에 곤도라를 타고 올라 왔을 땐 활짝 개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준비해 온 여벌옷을 꺼입고 정상 전망대에 올라오니 밑에서 보았던 로키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산꼭대기에서도 다람쥐와 사슴의 일종인 빅혼십 무리를 볼 수 있었다.

올라 갈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 갈 때 곤도라에서 보니 수림 사이로 마치 알프스처럼 지그재그로 완만하게 트레일 코스를 닦아 놓았다.

곤도라만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게 아니라 올라갈 땐 트레일을 하고 내려갈 땐 곤도라를 타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서 잠깐 알프스와 로키를 비교 하여보면 로키는 웅장하고 야생의 역동이 있다면 알프스는 파고 들수록 오밀조밀하고 세심하다고 할까.

알프스는 호수 주변이나 융프라우나 몽블랑을 바라보기 딱 좋을 만하거나 피로 해서 조금 쉬었으면 하는 곳에는 틀림없이 예쁜 벤치가 있다.

눈덮인 트레일 코스에는 아이젠을 신지 않고도 내려갈 수 있도록 우드칩이 뿌려져 있는 등 그 세심함은 정말 감동적이다.

시내에 내려와 어슬렁거리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황온천이 용출되는 Cave and Basin에 들려 서부 밴프 개발과정을 보고 원주민 역사를 전시해 놓은 렉스턴 뮤지엄을 살펴본 다음 우리가 어제 호사했던 페어먼트 스프링스 호텔 입구에서 출발하는 승마 트레일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하고 아들 내외는 다운타운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 승마 규정상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트레일을 할 수 없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별도로 통역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해서 우리 4명이 함께 하였다.

코스는 호텔 뒷편 숲을 통과해 스프레이강을 건너고 밴프 골프장을 지나 두강이 합류 하는 보우폭포 앞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코스설계도 아기자기하게 잘 짜여져 있고 오랫동안 말을 타보니 기분이 정말 상쾌하였다.

캔모어로 돌아가는 도중 석양에 불그스름하게 빛나는 하얀 암석 절벽 위로 선명한 쌍무지개가 걸리는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우리 모두를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롯지 건너편 산기슭 마을 쪽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집들은 드문드문 있는데 인적은 없어 적막 그대로다.

그래도 숲속에는 마을 회관도 있고 테니스코트, 미니축구장, 어린이 놀이터 등 있을건 다 있는것 같았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곁에서라도 보고 싶어 점점 더 외딴곳으로 들어가니 집들마다 입구에는 희한한 소품으로 장식하고 창가에는 꽃화분이 놓여있다.

지금은 분명히 식사시간 때라 귀가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식사도하고 조금은 왁자지껄 활기가 도는 시간일 텐데 희미한 불빛만 새어 나올 뿐 조용하다.

호기심에 이끌려 돌아다니는 사이에 어둠이 스물스물 내려와 숲속을 감싸면서 이곳도 곰이 출몰한다는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무서워져 급하게 숙소로 내려왔다.

내일은 오카나간 벨리의 종착지인 오소유스에서 숙박하기로 했는데 숙소 사정상 펜틱톤에서 자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 **일곱째 날 9/20 맑음**

오늘 여정은 보통 록키 여행자들이 밴쿠버에서 출발하여 메릿 → 호프 → 캠퍼푸스 → Sicamous → Revelstoke → Golden → 루이스로 가는 코스를 우리는 역으로 루이스 → 골든 → 레벨스톡까지 Trans Canada Hwy(#1)를 타고가다 시카머스에서 좌회전 해서 Okanagan Hwy(#97)를 타고Vernon → 켈로나를 거쳐 남쪽 Penticton 까지 가는 여정이다.

아침 08시에 우리가 이틀을 묵었던 캔모어를 뒤로하고 3일간 싸다니던 밴프와 루이스를 지나 Yoho 국립 공원 쪽으로 들어서자 쾌청했던 날씨가 돌변하였다.

거의2~3미터 앞이 안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덕분에 이제까지 못 보았던 곰을 볼 수 있었다.

안개가 너무 끼어 차를 갓길에 세울까 말까 하는 사이에 검은 새끼곰은 우리를 한참 보다가 숲으로 사라져 버렸다

Spiral Tunnel 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지나치고 Field에서 에머럴드 호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Natural Bridge도 지나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짙은 안개가 끼면 앞으로 운전할 것도 걱정되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곳이 밴프 국립공원의 루이스호와 요흐 국립공원의 Emerald호인데 두군데다 날씨 때문에 망칠것 같아 어쩌나 했는데...

그런데 웬 일, 반전이 있어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에드머럴호 초입에 들어서니 병풍처럼 둘러싸인 호수 주변만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건너편 산자락과 수면위로는 안개가 마치 하얀 띠를 두르고 있는 것 같

은 몽혼적인 환상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록키에서 꼭 가보아야 할 명소 랭킹 중 나는 Emerald Lake를 맨 첫자리에 놓고 싶다 .

단지 아쉬웠던 것은 여기서는 꼭 카누를 타려고 했으나 11시 이후에 오픈 한다고 하여 호수 주변만 트레일한 다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갈 길을 재촉하였다.

밴프나 제스퍼, 요흐처럼 덜 알려져 있으나 겨울 스포츠와 휴양지로 유명하고 밴쿠버에서 밴프로 들어가는 여행자들의 중간 기착지로 잘 알려진 Revelstoke를 지나 Sicamous에서 좌회전을 하여 Vernon을 향해 #97A번 도로를 타야 되는 되는데 깜박 지나치는 바람에 온 식구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위험하게 유턴을 할 필요 없이 호수를 끼고 캠퍼푸스를 향해 조금더 가다 좌회전하여 #97B호를 타면 다시 #97도로에 합류하여 점심을 하기로 한 켈로나에 도착 할수 있다.

버넌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한 후 아들과 교대 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크게 불편을 겪지는 않았지만 실수한 요인을 생각하면,

- 첫째: 집에서 부터 가지고온 가이드북을 시애틀에 두고 온것
- 둘째: 아들 내외가 준비한 정보(숙소,주요포인트)가 깨져버린 일
- 셋째: 집사람 폰에 저장 해놓고도 여행 끝나갈 때야 안 일

어디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으며 작은 실수도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닐까.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Okanagan Lake의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여름 휴양도시인 Kelowna 의 한식당 "궁"에서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뼈 감자탕을 포식하고 호수를 따라 Penticton 을 향해 출발 하였다.

Okanagan Wine Route는 켈로나에서 피치랜드와 펜틱턴을 거쳐 오유스까지 115km 구간은 호수를 끼고 가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수많은 와이너리가 있어 와이너리 투어지로 잘 알려져있고 특히 당도높은 와이스 와인이 유명하다.

우리는 Summerland에 있는 Sumac Ridge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토요일이라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과일가게에서 추천받은 독일계이민 8세가 운영하는 The 8th Generation Winery 가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일반 자작농이 하는 아담하고도 작은 와이너리가 아니고 공장식이어서 조금 아쉬웠다.

오카나간 벨리는 과일과 와이너리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규모나 유명세 면에서 프랑스나 스페인과는 상대가 되질 않고 오히려 수상 스포츠나 휴양지로 캐나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것 같다.

우리 숙소가 이름부터 Black Sea고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선착장은 계류된 요트들로 붐비고 한편에는 그 옛날 호수를 오르내렸을 커다란 바위를 단 외륜선 한척이 메어 있었다.

### 여덟째 날 9/21/괘청

오늘은 #97번 도로를 타고 Osoyoos를 거쳐 미국 국경심사대가 있는 Oroville을 통과한다음 Chelan Lake→Wenatchee에서 #2 Hwy를 타고 Cascade 산맥을 넘어 시애틀로 들어가면 이번 여행의 종착역이다.

펜틱턴을 출발하여 63km를 달려 캐나다 오카나간밸리 최남단으로 미국 워싱턴주 가까이에 있는 국경도시 오소유스에 도착하였다.

Osoyoos는 원주민말로 물이 좁아진다는 말로 캐나다 유일의 사막지여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다고 한다.

시내에서 8km 정도 떨어진 점박이호수로 알려진 소포티드호를 찾아 갔으나 캐나다 정부에서 훼손을 막기 위해서 휴식년 동안 울타리를 쳐놓아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구경 하였다

소금 호수로 형태는 염분의 침착도에 따라 크고 작은 동심원 형태의 여자 땡땡이 치마와 같은 점박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런 색에서 부터 붉은스름한 색으로 변하며 호숫물은 치료효과도 있다고 한다.

점박이호수 반대편 방향에 있는 캐나다 유일의 사막을 구경 갔는데 내가 경험한 사하라나, 몽골의 고비 사막과 같은 사막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그저 황량한 건조 지대였다.

바로 앞에는 사막 문화 체험관이 있었는데 들어가 봐야 그사막에 그체험관 일것 같아 야외에서 국경통관에 대비해서오카나간에서 가지고온 과일을 먹어 치우고 유학생들 사이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한 Port of Entry Oroville로 향하였다.

역시 게이트에서부터 뚱뚱한 여자 심사관의 눈매가 심상찮고 애보츠포드 검문소와 달리 질문사항도 많고 차트링크를 열고 일일이 검색을 하였다

우리가 차안에서 잡담을 하다가 웃으니까 고개를 획 돌리면서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왜 웃느냐고 시비조로 묻는 모습이 장난이 아니다.

아들 내외가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국경을 넘으면 학교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왔는지 확인하는라 시간이 꽤 걸렸다.

#97Hwy 를 따라 Chelan 으로 가는 길은 오카나간 벨리와 흡사하게 계속 호수가 나오고 사람들은 요트나 카누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주변은 포도나



과일농원이 이어졌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쉬어 가기로 한 Chelan Lake는 워싱턴 주에서 이름난 수상 휴양도시로 국립휴양지로 지정된 곳이다. 아들 내외도 금년 여름 학기 끝나고 며칠 묵었다고 한다.

호반도로 양쪽에는 지중해풍의 펜션이나 리조트가 즐비하여 꼭 프랑스 남부와 비슷한 풍경이다.

호수에는 요트가 메어 있고 언덕에는 포도밭이 있는게 딱 판박이다.

아들이 여름에 며칠 묵었다는 호수 제일 끝에 있는 그럴싸한 리조트를 구경하려고 했더니 사적인 곳이라 경비원이 차안에서 구경은 하되 내리는 것은 안된단다.

공원에서 싸가지고온 도시락을 먹고 Wenatchee를 조금 지나 우회전 하여 #2번 도로로 접어들면 험준한 Cascade 산맥이다.

이제까지 주변 풍경과 전혀 다른 산악 지대가 전개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 시애틀로 돌아오면서 3400km의 긴 여정을 마무리 했다.

## □ 여행을 마감 하면서

### ○ 시애틀에서

아들 내외가 다니는 워싱턴 주립대학을 구경 하면서 이틀을 쉬고 9/24 아시아나 OZ 271편에 몸을 실었다.

11시간 반의 긴 비행도 여행 중에 보았던 로키와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생각하고 장기간의 여행을 통하여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흐뭇함에 지루한 줄을 몰랐다

### ○ 여행후기

- 이번 일정은 가족 여행임을 고려하여 다른 패키지 여행이나 어드벤처 타입보다 여유 있게 7박 8일로 짰다고 하나 9/10로 더 여유있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시애틀 일정을 2일 줄였으면 가능)

- 여행의 추억은 무조건 여기저기 찍고 다니는 것 보다는 차분하게 한 곳에서 오래 죽치면서 편하게 하는 것이 오래 남기 때문에 당초 계획 보다 찍기를 많이 줄였지만 더 줄였어야 함.

- 아들내외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여행취향을 감안치 못함(전항 참조):예를 들

면 당초 계획에 루이스, 캔모어, 골든에서 일박씩 인데 서로 멀지 않는 거리라면 처음부터 캔모어에서 3박을 했더라면 경비도 절감되고 보다 차분하게 일정을 소화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함

- 여행시기를 성수기를 막지나 비수기(10월부터)로 접어들기 직전에 여행 함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특히 몇 시간씩 기다린다는 곤도라 탑승, 설상차타기, 크루즈등에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나 그래도 여름에 해야 제격인 카누나 카약등을 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